

완도전복 다양한 제품 개발로 소비 촉진

완도군은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전복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 극복을 위해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관련단체, 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국 전복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완도전복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문화로 수급조절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가격이 하락, 양식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활 전복 이용도가 여전히 높은 소비시장을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월

전복산업 관련단체 유통업체들과 협력

냉동전복 택배 사업 호평 상품성 강화

초 냉동 전복 택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활 전복의 경우, 껍질을 벗길 때 손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먹고 난후 껍질 뒤처리가 불편해서 소비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완도군과 가공업체는 껍질을 벗긴 살 전복을 먹기 쉽고 보관이 간편하도록 소포장 팩으로 나눠 담아 소비

자에게 배송하는 택배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활 전복보다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좀 더 보완하면 상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복 소비 문화로 생산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 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



완도군과 가공업체는 껍질을 벗긴 살 전복을 먹기 쉽고 보관이 간편하도록 소포장 팩으로 나눠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택배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부터 유통, 마지막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고 밝혔다.

생산자들은 건강한 치패의 적정량 입식, 가두리 1줄 비우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유통단계 축소 및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종합대책 마련과 ‘군민부터 전복 2kg씩 소비하기 운동’을 펼쳐 나 갈 계획이다.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수출및유통협회에서도 전복 먹기 군민 운동 전개를 받기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 전복생산량은 1만8,000톤이 예상되며 이중 66%인 1만2,000톤이 완도군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최규욱 기자

주목! 이사람



박흥률 목포 시장은 15일 만호동과 삼학동에서 2018 시정보고회 및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 군수는 15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육관에서 열리는 2018평창패럴림픽과 함께하는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전동평 영암 군수는 15일 오후 2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전남체전출전준비상황 보고회에 참석한다.



영암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애플수박 재배농가 및 재배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애플수박 교육을 실시했다.

영암 신소득 작목 애플수박 주목

1인가구 소비트렌드 대응 교육

영암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1인용 과일인 애플수박 재배교육을 실시했다.

애플수박은 핵가족 추세와 1인 가구 확산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이번 교육은 애플수박 재배농가 및 재배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애플수박은 하우스 내에서 공중유인 방식으로 재배해 포기당 4~6개를 수확

할 수 있다. 수박재배에서 발생하는 장마기간 중 병해충 피해와 품질 저하 등 고질적인 문제를 미니수박 공중재배로 경감시켜, 수량이나 품질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 애플수박은 사과 정도 크기의 작은 수박으로 껍질이 얇고 깎아 먹을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춰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지역문화유산교육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일환으로 ‘우리 동네 청자이야기’ 교육을 선보인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문화유산 만들기, 따라 배우기, 문화창조의 과정 등 체험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는 교육 사업이다.

고려청자박물관의 ‘우리동네 청자이야기’는 강진의 대표 문화유산인 청자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창의와 인성,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초등·중학교 학생들이며 4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강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칠량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전문도정시설 등 5억 지원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8년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에 강진군 칠량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이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 친환경 쌀도정시설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칠량영농조합법인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사업계획에 대한 공개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군은 이번엔 선정된 도비 2억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억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도정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도정시설은 농가가 기존 원료벼로 출하하던 방식에서 직접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 생산된 부산물을 퇴비 원료로 활용해 순환농업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쌀로 가공 판매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와 연중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원료곡을 일반창고에서 고온기에 장기간 보관시 해충 등 품위저하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저온

저장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저온저장으로 연중 고품질 쌀의 신선도를 유지해 강진 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관내 친환경 벼의 계약 재배 및 인증면적 확대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며 내실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향후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유지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군민과의 대화

건의추진상황 보고회

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로 실과소장 등이 참석, 신속한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군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격의 없는 소통행정을 펼친 후 7개 읍·면의 건의사항은 187건으로 완결 77건, 추진 중 92건, 추진이 불가한 사항



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은 18건으로 분석됐다.

특히 진도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건의 내용 중 조속히 시행돼야 할 현안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 처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장기 검토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 우선 순위 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박병호 기자

목포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목포시의회는 13일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를 순수 시비 12억원으로 지원하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난 3월부터 전액 지원함에 따라 목포시 고등학생 학부모는 하반기부터 중식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목포=강성우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목 포 010-3272-2765
- 011-632-0323
- 신 안 010-4627-1472
- 영 암 010-4624-8409
- 진 도 010-3624-4777
- 완 도 010-5619-7020
- 해 남 010-8181-2627
- 강 진 010-6646-1241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